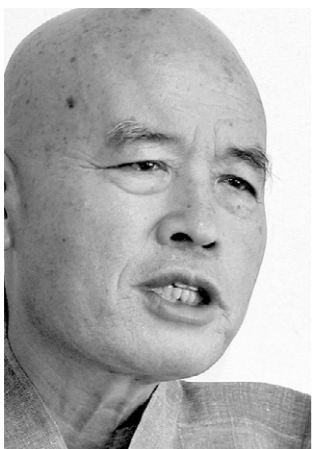


수행자는 가난해야 합니다

대선 스님 (요덕사 흥련암 주지)



래 풍주의보가 내렸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완주군에 들어서서도 지도에 없는 요덕사로 가는 길은 험지 않았다. 앞으로 더 나아가면 길이 없을 것 같은데도 모퉁이를 돌면 길은 이어지고 그 길의 끝에 요덕사가 있었다. 세찬 비바람 속에서 대나무는 몸살을 앓고 있었고, 단국화는 이미 고개를 꺾고 말았다. 이렇게 절기처럼 내리는 우중에 대선 스님을 찾았으니 객이 더 민망스럽다.

법문을 청하자 대선 스님은 “요즈음 공부도 별로 안 했고 해서 법문 할 것이 없어. 그리고 훌륭한 스님들이 좋은 법문 다 했는데, 내 같이 어설피 법문은 안하는 것 보다 못해”라고 대답하신다. 대선 스님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 해인사 성철 스님, 춘성 스님, 금오 스님, 한국 스님- 회상에서 공부 한 법문으로 이름이 나 있기에 스님의 수행담이 듣고 싶었다.

“70년대 그때 성철 스님 회상에서 80-90명이 공부 했는데 노장님이 짧았을 때라 기운이 넘쳤지. 용맹정진을 할 때 물푸레나무로 깎은 장군죽비 10점이 다 부러졌으니 참으로 치열하게 공부했어. 그때 내가 선원장이었는데 대표로 내가 맞아야 젊은 사람들이 별 불평 없이 맞을 것 아닙니까. 그 굵은 장군죽비로 때리면 한 대가 아니라 연타로 딱 날아오는데도 시원찮으면 또 때려달라고 했을 정도니 목숨 걸고 공부할 때였어. 신심과 정진력이 없으면 버티지를 못합니다. 장군죽비로 때리는 것이 성철 스님의 가풍이지요. 지금은 그런 가풍도 사라지고 그렇게 맞아가면서 치열하게 공부하는 곳도 가르치려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때가 그립습니다.”

대선 스님은 일곱 살에 <천자문>을 뽐 정도로 영특하였다. 중학교 1학년 때 <주해강설 금강경> 서문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때부터 도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 은사스님은 상좌들에게 웃 한 벌 해주는 법이 없었고, 용돈 주는 일도 없었어요. 그때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절이 공주 갑사였는데, 심지어 빗자루로 마당을 쓸 때도 먼지를 밖으로 쫓아내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 다. 가람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근검절약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것이 해원 스님의 가풍이야. 중의 법도는 원래 가난해야 하는 것이요...”

은사스님의 근검절약을 품에 익힌 대선 스님은 소박한 삶을 수행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 요즈음 출가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 행자들에게 호의 호식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스님은 “내가 산골중이라 그런지 몰라도 수행자에게 있어서 물질은 독과 같은 것이며, 상좌들을 해외여행 보내고 하는데 그것 다 공부 망치는 길입니다. 상좌들 공부 아무지게

시켜야 우리 불교가 번창하는 것이지요.” 대선 스님은 갑사의 복사자암에서 공부할 때 겨울에 불도 때지 않은 차가운 방에서 삼년을 공부하였다. 공부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줄 알았다. 사람들은 대선 스님이 이미 그때 한 경지 깨달았다고 한다. 대선 스님은 도봉산 망월사에서 육 잡하기로 유명한 춘성 스님을 10여 년간이나 모셨다. 수좌들은 편하게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춘성 스님의 철학이었기에 망월사 선방에는 이불과 베개가 없었다.

“춘성 스님은 조실이면서도 자신의 방도 없이 선방에서 지냈으며, 팔베개하고 한두 시간 잠자는 것이 전부였어요. 밤새도록 꼳꼳하게 앉아 정진하였습니다. 춘성 스님은 <8화엄경>을 다 외울 정도로 대단한 강백이었는데도, 경전이나 어록을 보면 쫓겨났어요. 팔만대장경도 마음 심(心)자 하나를 압축해 놓은 것이고 조주 무(無)자 하나만 타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춘성 스님은 일평생 자기 밥상을 따로 받지 않고 대중들 속에서 같이 먹었으며, 바깥에서 들어 온 음식은 드시지 않았어요. 그 산에서 나는 죽과 풀만 뜯어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철학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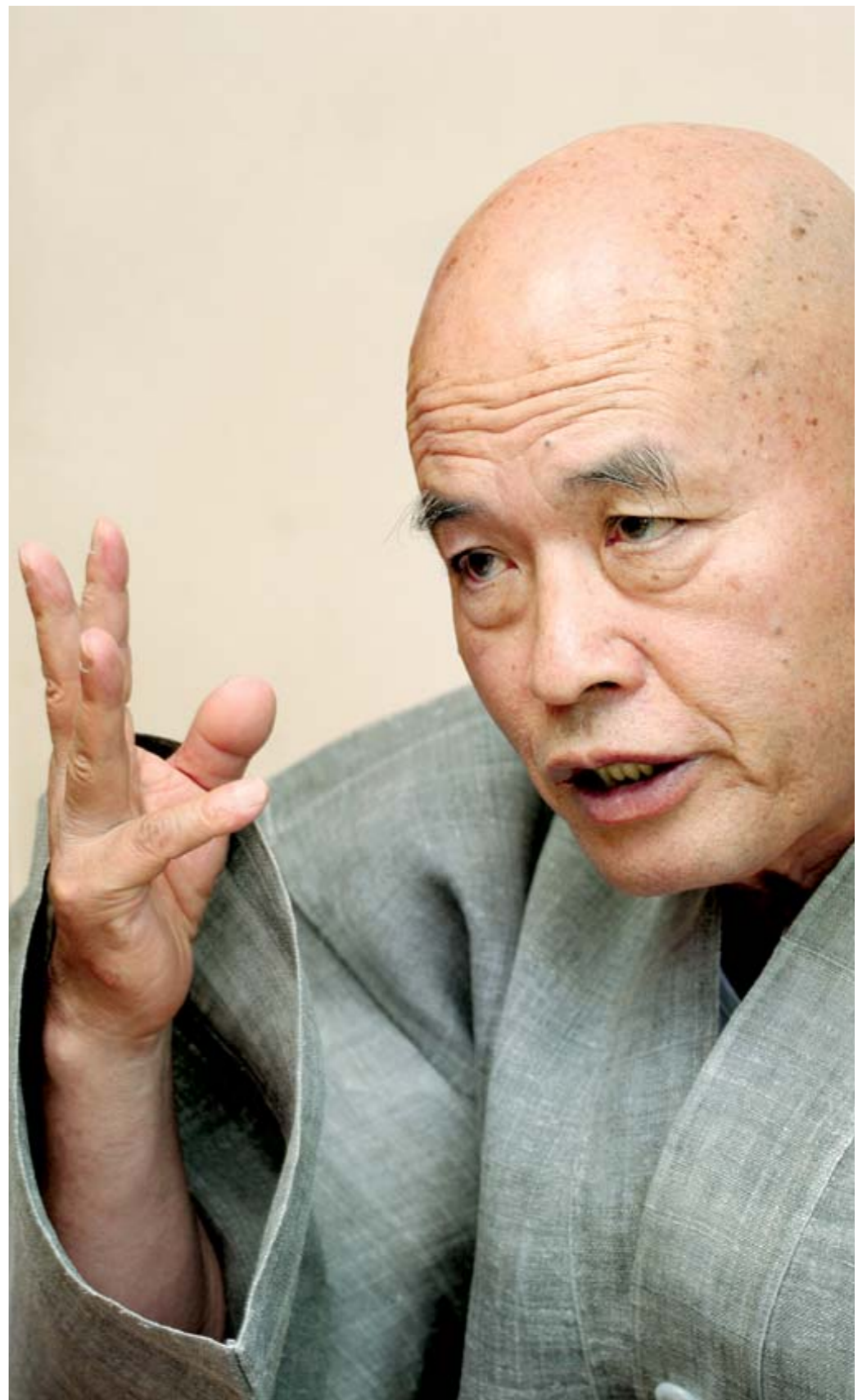
수행자에게 물질은 毒과 같아, 공부 아무지게 해야 어머니 모시고 정진... “복 받으려면 효도하세요” 농사지으며 공양거리 해결할 정도로 근검절약

대선 스님 또한 밥상을 따로 받지 않고 누구와도 같이 한 밥상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또 스님은 이곳 요덕사에서 직접 농사지는 것으로만 공양거리를 마련하고 있다. 춘성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스님에게 귀감이 되어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허 스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수행하였듯이 대선 스님은 생가(生家)를 절로 만들어 어머니가 91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공부하였다. 30여년을 선방을 돌면서 공부하였고, 어느 정도 공부가 무르익고 보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다. 그래서 지금의 흥련암 청풍선원을 만든 것이다. 대선 스님은 사람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불자의 참된 도리이며 복 받고 싶으면 부모님을 잘 모셔야”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어머니의 신앙생활에 스님이 관여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새벽 2시 반이면 일어나 새벽 예불을 올리고 하루에 2시간씩 사분(四分) 정군을 하였다. 대선 스님은 이곳 흥련암에서 권일기도를 3년이나 회향하였다. 어머니와 함께 20여명의 사람들이 천일기도를 했는데, 그 중 두 사람은 출가를 하여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때 대선 스님도 신심이 나서 마을 전체를 돌면서 2시간이 넘게 도량력을 하였다고 하니 불교가 무엇인 지도 모르는 산골에 불교를 심었던 것이다.

청풍선원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수좌들 네 다섯 사람과 함께 공부했는데 마을에 있다 보니 수행환경이 되지



않아 재가자들의 선방으로 바꾸었다. 요즈음에는 그렇게 엄하게 하지는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풍선원은 결계 때는 7일 용맹정진을 하였다. 재가자들이었지만 대선 스님은 성철 스님의 가풍을 이어받아 장군죽비를 사정없이 내려쳤다.

“선방에 발을 들여놓았으면 재가자라는 생각을 떠나 깨닫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공부해야 하는 것이야. 이 공부 한 번 죽었다가 깨어나야 되는 공부여.”

대선 스님의 말씀은 거침없었다. 방안을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에서 수행자의 기상이 그대로 느껴졌다. 스님은 재야에서 비승비승으로 살고 있다고 하시지만, 대선 스님의 살아오신 발자취 그대로가 산 법문이지, 근래에 보기 드문 선지식이 아닌가 싶다.

오후 7시가 되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예닐곱 사람들이 우산을 받쳐 들고 선방을 찾았다. 깨닫고야 말겠다는 그들의 신심이 놀랐다. 대선 스님은 연밥 다섯송이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연밥을 받아든 나는 공부해서 이렇게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에 감동을 들었다. 숙제 한 가지를 어깨에 메고 온 느낌이. 바람과 달빛과 별빛과 햇살을 머금고 있는 초록색 연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구멍마다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 마치 일체 중생이 불성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는설위원)

선지식을 찾아서

대선

대선 스님은 1938년 전라도 원주군에서 태어나 14세에 <금강경>을 읽고 발심하였다. 19세에 계룡산 갑사에서 만공 스님의 제자인 해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도봉산 망월사에서 10년 동안 춘성 스님 시봉을 들었으며, 해인사 성철 스님 회상에서 10년 동안 정진하였다. 그후에도 금오 스님 한국 스님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20여 년 전부터 생가에 흥련암 청풍선원을 지어 속가의 어머니를 모시고 공부에 전념하였다. 대선 스님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재가 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참선만이 불교의 살길이라는 생각에 대선 스님은 수행산내에 청풍선원을 비롯하여 요덕사 정진원과 오도암의 선방을 지었다.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기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 연꽃액자, 음마니반메홍주자 등

순금경전권역 (소) 3.5 x 5cm (중) 5 x 7cm (대) 6.8 x 9.7cm

관세음보살보문품 (중) 관세음보살보문품(중, 대) 금강경(소, 중, 대) 지장보살보문품(중)

지장보살본원경 (대) 42 x 65cm

달마액자 (중) 35 x 50cm (대) 42 x 65cm

연꽃액자 26 x 26cm

족자 60 x 20cm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얻을 수 있으며 효신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운이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사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흑단무늬목 포대화사향로 (대) 26 x 16 x 16cm 155,000원 (중) 20 x 12 x 12cm 95,000원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운이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으로 최고입니다. *제품 특성상 수공예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의 영험의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염주들 금강염주는 1500℃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화와 93% 원치외선, 높은음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

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 등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마 염주입니다. 진박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현력이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이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의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1SET(3EA) 245,000원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향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